

宋代 문화와 서사문학 발전의 상관관계 연구

李時燦*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정신문화
 - 1) 문치주의
 - 2) 교육제도
3. 물질문화
 - 1) 도시구조
 - 2) 경제구조
4. 서사문학의 발전 양상
 - 1) 書會와 通俗文學의 발전
 - 2) 서사문학의 분화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文化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함의를 지닌다. '文(글)'은 '紋(무늬)'과 뜻이 통하는 글자이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의 무늬인 '天文'이고, 산과 강은 땅의 무늬인 '地文'이며, 사람이 창조한 유무형의 일체의 것은 바로 사람의 무늬인 '人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宋代 文化'라고 하는 것은 중국역사상 宋인들이 전대와 다르게 새롭게 무늬화한 정신적, 물질적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룰 것은 바로 宋代에 새로이 탄생한 文化는 이전 시대와 달리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특히 서사문학의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가를 구조적으로

* 淸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밝히는 것이다.

宋代 문화가 이룩한 미증유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朱熹·王國維·陳寅恪·鄧廣銘과 같은 고금의 문인과 학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¹⁾ 그리고 서사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과 관련해서도 魯迅은 宋代의 특징을 한마디로 “(중국)소설사상의 큰 변천”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²⁾ 필자는 魯迅을 비롯한 저명한 학자들이 宋代를 역사상 중국 문화의 절정으로 보거나 가장 큰 전환점으로 보는 공통된 인식이 太祖 趙匡胤의 통치 이념에서 파생된 여러 제도의 혁신과 당시 도시와 경제구조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에 본문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집중하여 宋代 문화의 구조적인 측면과 서사문학이 발전한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宋代에 일어난 정신문화의 변화를 주로 문치주의와 교육제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宋朝는 北宋과 南宋을 거쳐 약 320년 존속하는 동안 漢·唐·元·明·淸대에 있었던 대규모 농민봉기가 출현한 적이 없었다. 또한 漢·唐·明처럼 외척과 환관이 권력을 독점한 통치계급의 내분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역사상 드문 일이며, 이는 兩宋의 문치주의 및 교육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 출발은 太祖 趙匡胤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논증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신문화의 변혁에 힘입어 소설을 비롯한 서사문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증하고자 한다.

둘째, 宋代에 일어난 물질문화의 변화를 주로 兩宋의 도시구조와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宋代는 비록 대외적으로 군사력은 취약했지만 開封이나 杭州와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의 번영과 문화의 발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주로 대운하의 요지에 위치한 宋代의 주요 도시들은 중국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효과는 중국에 도시문화의 흥성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필자는 宋代의 도시구조가 갖는 특징을 바탕으로 시민문화의

1) 拙稿, 《綠窓新話》一書의 성격과 소설사적 가치, 《中國文學研究》54집, 2014년, 149-150쪽 참고.

2) 魯迅: “小說史上的一大變遷.”, 《中國小說史略》附錄一《中國小說的歷史的變遷》,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2, 250쪽.

흥기 및 특히 그것이 宋代 서사문학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었던 상관관계를 역시 순차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셋째, 宋代 서사문학의 발전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하고자 한다. 《史記》를 필두로 발전한 역사산문 이래로 唐代의 傳奇小說에 이르기까지 고대 중국의 서사문학은 다양한 갈래로 발전을 해나갔다. 그러나 宋代에 이르면 근원적이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사문학을 향유하는 계층의 대폭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과거에 비해 일정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된 시민은 여가를 위한 오락문화를 찾게 되고, 그것은 곧 서사문학의 주된 소비층이 상층 귀족에서 일반 평민으로 옮겨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필자는 宋代에 서사문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書會라는 조직과 관련해서 서사문학의 분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상의 논제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宋代의 문화가 갖는 특수성이 부각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소설을 위시한 서사문학이 元明 시기에 만개할 수 있었던 씨앗의 태동이 宋代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정신문화

1) 문치주의

宋代 문화의 번영은 각 영역에서 나타났다. 兩宋시대에는 현재까지도 중국을 대표할 만한 많은 학과와 학자들이 우선 철학 분야에서 출현했다. 明末清初의 인물인 黃宗羲가 저술한 《宋元學案》에 수록된 인물의 95%가 兩宋 출신이다. 문학 분야에서도 중국을 대표하는 문장가인 唐宋八大家 가운데 6명이 宋代의 인물이다. 이처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宋代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역시 太祖 趙匡胤이 내세운 문치주의를 들 수 있다.

趙匡胤이 문치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데에는 그가 황제에 오르기까지 불과 53년 동안 다섯 번이나 왕조가 바뀌고 14명의 황제가 명멸하는 등 무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정치사회의 폐단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는 백전 불패의 장수로서 누구보다 '武'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개국과 통치과정에서는 무단통치보다는 문치가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했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황제 즉위 후에 그에게 불경했던 인재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심지어는 높은 관직까지 하사했으며, 특히 後周에 충성을 바쳤던 신하들을 그대로 유임하라는 조서를 내리기까지 했다. 趙匡胤에게 등용된 인물 가운데 李昉과 같은 인물은 애초에 朝禮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宋朝에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냈으나 趙匡胤은 오히려 그를 翰林學士로 중용했다. 그리고 藩鎮 세력을 견제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완성하기 위해 평정 후 편입된 지역에는 반드시 文官 '通判'³⁾을 파견해서 함께 다스리게 했다.

趙匡胤의 문치주의 이념은 후대의 황제들에게 남긴 遺訓 誓約碑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遺訓으로 "士大夫와 글을 올린 자를 죽이지 말라."(不得殺士大夫及上書言事人.)고 했고, 또 "자손이 이 맹서를 깨뜨리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子孫有渝此誓者, 天必殛之.)⁴⁾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사대부를 존중하고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개방했기 때문에 宋代에는 특히 사상과 문학을 비롯한 예술이 전대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가령 朱子は 전대의 유학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新儒學이라 불리는 '理學'을 체계화해서 중국 사상의 거대한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王安石을 비롯한 많은 정치가와 문인들은 황제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개혁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3) '通判'이란 공동으로 政務를 관장한다는 뜻으로 州政府 장관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주정부의 행정사무와 관리를 감찰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어 '監州'라고도 불리었다. 주정부의 민정, 재정, 호구, 세금, 사법 관련 주요 문서들은 반드시 '知州'와 '通判'의 서명이 함께 들어가야만 효력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큰 주에는 2명의 통관을 두었고, 인구 1만 명 미만인 주에는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知州가 武官일 경우에는 작은 주이더라도 반드시 通判을 두었다. 知州와 通判은 상호견제함으로써 중앙집권에 대한 지방 장관의 반란과 진형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宋太祖 趙匡胤은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중앙집권을 단계적으로 실현했다. 위의 책, 《송태조 조광윤》, 187쪽 참고.

4) 陸游, 《避暑漫抄》(《宋人軼事彙編》卷一(太祖), 台灣商務印書館, 1982), 7쪽.

이다. 이처럼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둔 문치주의 이념은 2세 太宗 趙光義를 비롯한 후세 황제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고, 그 결실은 宋代 전체를 관통하는 독서 열풍과 대규모 서적편찬으로 결실을 맺었다. 우선 趙匡胤이 직접적인 명을 내리거나 심사를 한 책으로는 《唐會要》 100권 · 《五代會要》 30권 · 《名臣史迹》 5권 · 《五代史》 · 《經典釋文》 · 《神農本草》 등이 있다. 또 書生 출신으로 재상의 자리까지 오른 趙普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독서를 권장하여 독서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⁵⁾ 이런 기풍을 이어 받아 趙匡胤에게 기용되었던 翰林學士 李昉의 주도 아래 太宗 시기에 이르러 《太平廣記》 500卷 · 《太平御覽》 1000卷 · 《文苑英華》 1000卷 등의 大型類書들이 완성되었다. 이 가운데 《太平御覽》의 원래 서명은 《太平總類》였는데 太祖의 동생인 太宗 趙光義가 하루에 3권씩 열람하여 1년에 걸쳐 독과했다고 하여 서명을 고쳤다고 하니 太宗이야말로 太祖의 문치주의를 가장 잘 이어받고 발전시킨 장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北宋의 司馬光은 전대의 역사를 총괄한 《資治通鑑》 294卷을 저술했으며, 江贊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역사교과서로 널리 읽힌 《通鑑節要》 50卷을 저술했으며, 王欽若 등은 역대 임금과 신하들의 사적을 담은 《冊府元龜》 1000卷을 편찬했다. 과학 분야에서도 北宋의 沈括은 《夢溪筆談》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宋代에 접어들어 고대 중국의 과학수준이 절정에 달해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官方에서 주도한 독서와 출판 열풍은 비단 경전이나 역사에만 그치지 않고 小說을 애독하는 풍토도 낳았는데 당시 문인들의 추앙을 받았던 歐陽脩도 예외는 아니었다.⁶⁾ 당시 문인들의 독서 범위는 經典과 史書에 그치지 않고 소설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글쓰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위 개인 문집 형태로 간행된 '筆記'는 宋代에만 그 숫자가 약

5) 예를 들어, 《宋史·趙普傳》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젊어서는 관리의 일을 익히고 학술에는 과문했는데, 재상이 되니 태조께서 항상 독서를 권장하였다. 만년에는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여 사저로 돌아가서는 문을 닫고 책함을 열어 책을 꺼낸 뒤 종일토록 독서를 했다.”(少習史事, 寡學術, 及爲相, 太祖常勸以讀書. 晚年手不釋卷, 每歸私第, 闔戶啓篋取書, 讀之竟日.)《宋史》卷二百五十六, 《列傳》第十五(趙普), 北京, 中華書局, 1997년, 2285쪽.

6) 위의 논문, 《綠窓新話》一書의 성격과 소설사적 가치, 153쪽.

240권에 달한다. 이것은 唐代에 간행된 약 95권의 '筆記'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에 해당된다.

'筆記' 가운데 敘事性을 지닌 '文言筆記小說'은 약 60여 권에 달한다. 文言으로 된 筆記小說은 주로 상층 문인들이 집필한 것인데, 唐代에는 문인들이 주로 소일거리 삼아 단편 위주로 소설을 지은 반면에 宋代에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내는 것이 유행했다는 점을 통해 문인들의 소설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서민들까지 그 독자층의 외연을 넓혀가던 통속소설은 당시 황제는 물론 정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인물들도 소설의 소재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趙匡胤을 소재로 한 〈飛龍記〉와 蘇軾을 소재로 한 〈五戒禪師私紅蓮記〉를 들 수 있다.⁷⁾ 소설에서 當代의 왕이나 대신을 소재로 삼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문인을 존중하는 문치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蘇軾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대로 秦·漢·五代를 살펴보면 직간하여 죽은 사람이 수백이 됩니다. 하지만 建隆 이래로 지금까지 한마디 말로 죄를 삼은 적은 없습니다. 책임이 경미하면 풀어주고, 오래지 않아 품계를 뛰어 넘어 승진했습니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떠도는 소문만으로 상소를 올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풍채와 문벌, 귀천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니다. 어가를 언급하면 바로 천자가 낮빛을 달리하고, 일이 조정에 관계되면 바로 재상이 죄를 기다리게 됩니다.⁸⁾

宋代에는 이처럼 太祖이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언론에 관대했기 때문에 신하는 왕을 비판할 수 있었고,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은 그 누구든지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宋代의 정신문화는 문치주의를 기치로 내건

7) 〈飛龍記〉는 《醉翁談錄》甲集〈小說開闢〉의 '棍棒類'에, 〈五戒禪師私紅蓮記〉은 《清平山堂話本》에 각각 보인다. 〈飛龍記〉는 제목만 보이지만 元代 平話 가운데 〈趙太祖飛龍記〉 편명이 보이고, 明代소설 《飛龍傳》 또한 趙匡胤의 개국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8) "歷觀秦漢以及五代, 諫諍而死, 蓋數百人, 而自建隆以來, 未嘗罪一言者, 縱有薄責, 旋即超升, 許以風聞, 而无官長, 風采所繫, 不問尊卑, 言及乘輿, 則天子改容, 事關廊廟, 則宰相待罪.", 孔凡禮點校, 《蘇軾文集》第25卷, 〈上神宗皇帝書〉, 北京, 中華書局, 2004년, 740쪽.

제왕들의 통치철학에 의해 역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문학과 예술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소설을 위시한 서사문학은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창작과 전파가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 교육제도

문치주의는 교육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빛을 발한다. 교육제도는 크게 과거제도 와 학교제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宋代의 과거제도가 전대에 비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彌封·謄錄·鎖院등의 제반 조치를 통해 인재 선발의 공정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상당 부분 차단함과 동시에 평범한 서민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대폭 열리게 되었다. 北宋 때에 재상을 지냈던 呂蒙正·寇準·李迪·張知白·杜衍·王曾 등은 모두 끼니를 이을 쌀조차 없을 정도로 궁핍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리고 당시 대학자로 존경을 받았던 范仲淹과 歐陽脩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王禹偁은 방앗간 출신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뚫고 오직 독서와 과거를 통해 신분상승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北宋 시기에는 士農工商의 계층 구분이 전대만큼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대를 이어 출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북송 때 72명의 재상 중에서 같은 가문에 속했던 사람은 呂蒙正·呂夷簡·呂公著 3대와 韓琦·韓忠彥 2대밖에 없었으며, 그들 역시 門蔭이 아니라 과거제도를 통해 출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北宋시대에 世族 지주 관료는 이미 개별적인 현상에 속해 더 이상 하나의 사회계층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世族에 상대되는 존재인 庶族계층도 마찬가지로 사라져갔다. 그리하여 중국 고대 사회의 정치형태는 六朝시대의 귀족문벌 정치로부터 唐代의 半관료·半문벌정치를 거쳐 마침내 北宋 이후의 世族과 庶族의 구분이 없는 완전한 과거제 관료정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오늘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신분 상승을 위한 사회

적 제도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宋代의 정신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宋 仁宗 전후의 몇 십 년만 보더라도 중국 역사 전체를 빛낸 인물이 수십 명 출현했다. 예를 들어 范仲淹·歐陽脩·韓琦·司馬光·王安石·蘇軾·蘇轍·柳永·黃庭堅·周敦頤·張載·程顥·程頤·曾鞏·沈括 등등, 이들은 모두 각각의 영역에서 중국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처럼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11세기 중국에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과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⁹⁾ 元·明·淸 시기에도 과거제도는 실시되었지만 北宋과 비교할 때 그 엄격함이나 운용면에서는 오히려 뒤떨어졌기 때문에 걸출한 지식층의 출현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위에서 중국 역사 전반을 통틀어서 춘추전국시대 이후 대사상가나 문장가가 宋代에 특히 집중되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제도의 공정한 집행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바로 과거를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전대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데 있다. 唐代에는 매년 과거시험을 통해 선발한 인재가 일반적으로 50명을 넘지 않았고 보통 10-20명의 인원을 선발했다. 그러나 《宋史·選舉志》의 기록에 의하면, 宋代에는 과거를 한 번 거행할 때마다 평균 200-300명을 선발했고, 많을 때는 500-60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이 뽑았을 때는 宋 眞宗 咸平 3년(1000년) 실시한 과거인데, 이 때 進士科에서 409명, 나머지 諸科에서 430명, 그리고 황제의 '特奏名'에 의해 다시 뽑은 인원이 900여 명, 모두 합쳐서 약 1800여 명에 달했다.¹⁰⁾ 한 차례 시험에서 이처럼 많은 합격자가 배출된 이면에는 최소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과거 준비생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北宋 말기 徽宗 大觀 3년(1109년) 때 전체 戶數가 약 2,088만¹¹⁾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

9) 彌封: 시험지 상단의 수험생 이름과 관직, 가문 등의 기록을 가려 붙인 것.

謄錄: 수험생의 필체를 알아보기 못하게 하기 위해 殿試 답안지를 모두 전담자에게 맡겨 옮겨 쓴 후 시험관이 심사하도록 한 제도.

鎖院: 시험관에 해당하는 知貢舉가 명을 받으면 즉시 외부와 격리된 채 시험장에서 문을 열고 거처하며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 일체 접촉을 금지하게 한 제도.

金諍 지음,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야, 2002년, 152-168쪽 참고.

10) 郭齊家, 《中國古代考試制度》,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년, 79-80쪽.

11) (元)脫脫等撰, 《宋史》卷85《地理一》: “大觀三年, 當是時, 天下有戶二千八十八萬二千二百五

로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宋代의 학교제도는 과거제도와 연동되어 있다. 필자는 宋代의 학교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면을 ‘太學’과 ‘書院’의 발전과 운용에서 찾고자 한다. 宋代의 학교는 官學과 私學으로 나눌 수 있는데, ‘太學’은 官學에 해당하고, ‘書院’은 私學에 해당한다.¹²⁾

太學은 원래 國子學에 설치된 ‘廣文’·‘太學’·‘律學’의 三館 가운데 하나였다. 三館은 등급이 아니라 전공별로 나누어진 것이다. 兩漢 시기에 중앙의 최고 학교는 太學이었는데 입학 자격은 신분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東漢 말기에 이르러 太學生의 숫자가 약 3만 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東漢 말기부터 士族門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西晉 武帝 때부터 太學외에 별도로 國子學을 설립하여 귀족 자제들만 따로 교육하기 시작해서 唐代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宋代에 이르러 國子學은 귀족 자제의 학교라는 성격을 상실했으며, 太學은 仁宗 慶曆 4년(1044년)에 이르러 三館으로부터 독립해서 입학자격을 八品 이하의 자제 혹은 능력이 출중한 서민으로 정하면서 신분의 차별을 없애버렸다.¹³⁾ 이것은 宋代 학교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王安石이라는 개혁가가 있었다.

王安石은 ‘三舍法’을 입안하여 이전까지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학교를 조직적으로 개편하고자 했다. 학교 제도의 개혁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또한 ‘관리 선발(取士)’과 ‘관리 양성(養士)’의 제도적 통일을 꾀한 것이기도 하다. 종래에는 관리 선발을 위한 과거와 관리 양성을 위한 학교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학교는 쇠퇴하여 사제 간에 학문을 전수하는 길조차 끊겼음에도 현실적인 이익을 위한 과거 공부만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王安石은 取士를 위한 과거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三舍法을 정해서 養士를 위한 학교제도를 내실화한 것이다.¹⁴⁾

十八.”, 北京, 中華書局, 1997년, 565쪽.

12) 엄밀하게 말하자면 ‘書院’은 처음에는 私學의 성질을 지녔으나 나중에는 官方에서 간여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姚瀛艇 主編, 《宋代文化史》, 河南, 河南大學出版社, 1999년, 81쪽 참고)

13) 위의 책, 《宋史》卷157 《選舉三》: “太學生, 以八品以下子弟若庶人之俊異者爲之.”, 958쪽.

北宋 시기 관방이 주도한 과거와 학교 제도는 南宋 시기에 접어들면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생기를 잃어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書院이 흥성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北宋 시기에 건립된 서원은 37곳이고, 南宋 시기에 건립된 서원은 136곳에 이른다.¹⁵⁾ 唐代부터 시작된 서원 교육은 원래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만을 위해 공부하는 官學교육과 사회적 기풍에 반해서 일어났으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인간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다. 南宋의 朱熹가 '白鹿洞書院'을 재건하면서부터 서원은 부흥의 계기를 맞았다. 서원교육은 주로 自學과 講習 및 스승의 개별 지도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四書'를 비롯한 서적들을 공부할 때 무조건식 암기보다는 의문점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독서법이 강조되었다. 학생이 질문하고 스승이 대답하는 방식은 이미 《論語》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있는데, 朱熹 또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당시에 '語錄'이 유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書院의 교육방식은 주로 한 명의 스승으로부터 사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學派가 형성되는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학문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朱熹는 象山書院의 陸九淵을 白鹿洞書院으로 초청해서 강연을 열게 하고 그가 강연한 내용을 따로 간행하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학파가 書院에서 학문 교류를 하는 전범을 남겼다.¹⁶⁾ 오늘날로 치면 학술대회의 장소로써 기능했던 書院은 주로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치중했던 官學의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14) 三舍法: 王安石이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太學에 三舍(外舍·內舍·上舍)를 설치하여 외사생 300명, 내사생 200명, 상사생 100명으로 구성하고 과거에 나가지 않아도 太學을 나오면 직접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太學은 오늘날의 국립중앙대학에 해당하며, 外舍는 교양과정, 內舍는 전문과정, 上舍는 대학원과 비슷하다. 太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엄격한 정기 시험을 거쳐 외사에서 내사로, 또 내사에서 상사로 진급시키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과거를 통과하지 않고도 학생 신분에서 곧바로 관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숙사 제도를 채택하여 학생은 모두 齋(기숙사)에서 통학하게 했다. 三舍法은 王安石 사후 崇寧 연간(1102-1106)에는 마침내 지방의 州學·縣學으로 확대되었고 시험을 통해 縣學에서 州學으로, 州學에서 太學으로 진학하게 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것을 州縣三舍法이라고 부른다. (미우라쿠니오 지음, 이승연 옮김, 《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책세상, 2005년, 176-178쪽 참고.)

15) 郭齊家, 《中國古代學校》,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년, 125쪽.

16) 위의 책, 《中國古代學校》, 131쪽 참고.

宋代의 학문과 정신문화가 절정에 이르게 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제도와 학교제도를 통해서 宋代가 문인들의 외연이 급속하게 확장되는 시기였다면, 元代는 과거가 폐지되고 학교제도가 유명무실해짐으로 해서 문인들의 이탈이 전면적이고 가속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 기인하여 元代에는 문인들이 생계를 위해 통속문학인 희곡과 소설 등의 창작으로 붓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元代의 문인 집단은 宋代에 그 저변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며, 훗날 서사문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宋代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3. 물질문화

1) 도시구조

宋代의 도시구조는 唐代와 비교할 때 개방적인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隋唐을 거쳐 五代十國의 할거국면을 수습한 後周의 장수 趙匡胤은 960년 開封에 수도를 정하고 宋나라를 건국했다. '開封'이라는 도시명이 시사하듯이 이곳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¹⁷⁾

우선 唐代의 도시구조는 큰 성곽 속에 몇 개의 '里坊'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각의 里坊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里坊은 또한 행정구역 단위이기도

17) 宋代에는 네 곳의 京府가 있었는데, 東京開封府·西京洛陽府·北京大名府·南京應天府가 바로 그곳이다. 상고시기 개봉은 兗州와 豫州에 속하였다. 戰國 시기에는 魏나라에 속했었고, 그 수도를 開封에 정하고 大梁이라 이름 붙였다. 그 후 南北朝 시기에 北周가 北齊를 멸망시키면서 汴州로 개명하였는데, 왜냐하면 汴河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後梁을 세운 朱全忠은 汴州를 開封府로 승격시켰고, 또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 이후 五代 後梁에서 시작해 後唐 한 왕조를 제외하고 네 왕조에서 수도의 지위를 누리다 宋 건국 후에도 이를 이어 수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開封은 黃河가에 위치한 평원 지역으로 黃河 외에는 보호를 해줄만한 산이나 구릉 같은 장애물이 전혀 없다. 趙匡胤은 국방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북방에 주둔한 수십만의 군대를 위해서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나 편리한 漕運에 더 무게를 두고 이곳을 수도로 삼은 것이다.

하면서 독립된 상업지구였다. 里坊 안에는 고정된 東·西·南·北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시장을 여는 시기와 각 상점의 위치 및 상점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모두 정해져 있었다. 즉 唐代의 長安이나 洛陽과 같은 도시는 그 규모와는 무관하게 그 구조와 운용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활동도 주로 낮에만 이루어졌다. 唐代에 실시된 '坊市制'는 이처럼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宋代가 되면 '市場制'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北宋 太平興國 5년(980년)에 수도인 開封에서는 상점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어지고 부두나 다리 근처, 사찰 등 어디서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시민들에 대한 통제가 대폭 풀리고 금지되었던 공간이 개방되면서 도시 안팎에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과 오락 공간이 크게 발전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瓦舍'이다.

瓦舍는 '瓦'·'瓦子'·'瓦肆'·'瓦子'·'瓦市' 등으로도 불리었다. 隋唐시기에도 '戲場'이라 불리는 특화된 예술 공연 장소가 있었지만 坊市制의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 寺院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宋代에는 市場制로 개혁되면서 원하기만 하면 상업구역 내에 얼마든지 瓦舍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瓦舍 안에는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공연무대인 '勾欄'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勾欄이란 말 그대로 굽은 난간이란 뜻이다. 그 형태는 사방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사각형의 무대에 가장자리를 나지막한 난간으로 둘러놓았는데, 주요 기능은 안전과 장식이라고 한다.¹⁹⁾ 孟元老의 《東京夢華錄》에는 北宋 시기에 開封(汴京)의 勾欄에 대해서만 기록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南宋으로 접어들면서 杭州를 위시한 여러 도시에 瓦舍와 勾欄이 설치되어 있었다. 西湖老人이 저술한 《繁勝錄》에는 南宋 중기 무렵 杭州 내에 있던 瓦舍와 勾欄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보인다. 勾欄門外瓦子·薦橋門瓦·菜市門瓦·羊坊橋瓦·王家橋瓦²⁰⁾ 등 최

18) (日) 加藤繁, 《中國經濟史考證》 제1권, 北京, 商務印書館, 1959년, 277쪽 참고.

19) '瓦舍'와 '勾欄'의 뜻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廖奔이 저술한 《中國古代劇場史》, 河南, 中州古籍出版社, 1997년, 40-41쪽을 참고함.

20) 孟元老等著, 《東京夢華錄外四種》, 台北, 大立出版社, 1980년, 123-124쪽.

소 수십 개의 瓦舍가 있었던 南宋 시기 杭州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공연장 천국이 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공연장과 예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구조상 남북 방향으로 瓦舍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성 바깥에 설치된 勾欄은 '○○門'이나 '○○橋'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러한 곳에 시장이 들어서고 공연장도 함께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예인들이 주로 한 勾欄에서만 공연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공연한 것으로 보아 宋代에는 개방적인 도시구조 속에서 자유롭게 공연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문화시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²¹⁾

宋代에는 瓦舍와 같은 공연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찻집과 음식점 및 주점 등이 성황리에 영업을 했다. 이러한 장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夜市의 성황과 더불어 온갖 계층의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유흥과 예술공연을 즐겼다. 《東京夢華錄》 제2권 〈州橋夜市〉편에는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각종 먹거리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三更(밤 11시에서 1시)까지 장사를 했다고 되어 있다. 또 제3권 〈天曉諸人入市〉편에는 매일 五更(새벽 3시에서 5시)이 되면 각 사원의 行者들이 목탁을 치면서 각 문을 돌며 새벽을 알렸는데, 이때 각 성문이나 다리와 거리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내 몰려들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宋代의 도시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들 시장은 주로 성문이나 다리와 주요 거리 등 도처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활기찬 시장들로 변화한 宋代의 도시구조는 공연을 비롯한 각종 문화가 이전에 비해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1) 중소도시에도 대도시에 비해 적기는 했지만 상설 공연장인 瓦舍와 勾欄이 있었다. 유명한 연예인들은 중소도시를 돌며 순회공연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을 후대 소설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수호전》 51회 〈插翅虎枷打白秀英 美髯公誤失小衙內〉편을 보면 東京(開封)의 유명한 연예인인 白秀英이 공연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白秀英은 諸宮調와 戲舞, 吹彈, 歌唱 등을 혼자서 연기하는 뛰어난 재능을 지녀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고 했다.

2) 경제구조

한 사회의 경제구조를 알아보려면 우선 경제의 3요소인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측면을 분석해야 한다. 이 가운데 생산은 다시 토지, 노동, 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상 宋代 경제구조에 있어서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대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한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농업생산발전의 주요 지표는 첫째 농지 면적의 확대, 둘째 토양의 향상, 셋째 농작제도의 개선, 넷째 농작기술의 향상, 다섯째 경제작물 재배지역의 출현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표는 대체로 수리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수리사업과 관련한 河北 지방의 사례를 보면, 우선 黃河의 범람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神宗 때 王安石은 水利사업을 주도하여 熙寧 2년(1069년)때 黃河의 물길을 동쪽으로 흐르게 하고, 嘉祐 5년(1060)에는 제방이 터질 때 두 줄기로 흐르던 黃河의 물길을 한 곳으로 합쳤다. 이로 인해 퇴적된 땅이 늘어나고 원래의 토지가 회복됨에 따라 당시 河北의 농지는 수만 頃으로 늘어났다. 또한 각종 저수지를 적극 이용하여 농업과 어업의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갔다. 그리고 관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경작지가 크게 늘었다. 이처럼 수리사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농업의 생산력은 黃河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전대에 비해 크게 늘었다.²²⁾

수도인 開封의 생산력 역시 水利와 관련이 깊다. 기본적인 생산력의 발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物流인데 고대에는 아무래도 육로보다는 주로 수로에 의지했다. 南宋의 수도인 杭州를 비롯한 江南 지역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여 생산력이 높았던 곳이다. 그러나 北宋의 수도인 開封은 지리적으로 黃河 바로 아래쪽 대평원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한 도시이긴 하지만 또한 黃河의 범람으로 항상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隋代 이후로 대운하가 관통되면서 江南의 풍부한 물자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黃河를 이용해서 洛陽이나 長安 등지로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物流의 중심지였다. 開封

22) 程民生, 《宋代地域經濟》, 河南, 河南大學出版社, 1999년, 70-71쪽 참고.

의 생산력은 이처럼 運河를 매개로 한 物流를 토대로 크게 발전했다.²³⁾

노동력은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또 하나의 요소이다. 토지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의 증가는 宋代의 생산력을 이전에 볼 수 없는 정도로 끌어올렸다. 《太平環宇記》·《元豐九域志》·《宋史·地理志》 등의 문헌에 근거하여 당시 각 도시의 호구 통계를 보면 太宗 시기의 호구수에 비해 北宋 말기 徽宗 시기에 이르면 그 숫자는 평균 300%에서 嶺南 지역의 경우는 최대 863%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은 전대에는 일찍이 볼 수 없는 수치로 宋代 생산력 증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²⁴⁾

마지막으로 생산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기본 요소인 자본의 확충은 王安石의 개혁정책과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王安石은 조세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부국책으로 ‘靑苗法’·‘均輸法’·‘市易法’·‘募役法’을 시행했다. ‘新法’이라 불리는 그의 개혁정책은 당연히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행정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재정 수치 역시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지방의 재정 역시 충실해졌다. 결국 ‘新法’은 반대파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宋代 전체의 자본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²⁵⁾

농업 분야의 생산력 향상은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宋代 수공업의 새로운 특징으로는 업종마다 규모가 확대되고, 분업이 세분화되었으며, 생산기술이 발전하고 상품의 품질과 생산량이 모두 향상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隋唐 시기 수공업은 112개 업종이었으나 南宋에 이르면 414개 업종까지 발전했다. 가령 장인들이 모여 일하는 공방인 作坊만 하더라도 관영과 민영작방으로 나뉘었는데, 관영작방으로는 ‘修內庫’·‘八作司’·‘廣固作’·‘後苑作’·‘書藝局’·‘內酒坊’·‘綾錦院’·‘文綉院’ 등이 있었다. 민영작방은 그 종류가 훨씬 많았으며 제품만 만들고 판매는 위탁을 준 작방도 있었고,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한 작방도 있었다. 《東京蒙華錄》 제1권에는 開封의 여러 상점에서 판매하던 제품이 상세하

23) 伊原弘 지음, 조관희 옮김, 《중국중세도시기행》, 학고방, 2012년, 123-126쪽 참고.

24) 위의 책, 《宋代地域經濟》, 52-54쪽 참고.

25) 조관희, 《중국사강의》, 궁리출판, 2011년, 228-230쪽 참고.

게 나열되어 있으며, 《咸淳臨安志》 제19권에는 역시 당시 杭州에서 거래되던 상품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상업자본을 상징하는 '交引鋪'와 고리대금업을 의미하는 전당포 등이 대거 등장했다.²⁶⁾

宋代는 농업과 수공업 발전을 토대로 경제 생산력이 급속히 성장했으며, 특히 과거왕조와는 달리 상업을 가볍게 여기거나 억제하는 대신 개방정책으로 나아가 경제가 유래 없이 번영할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관영작방뿐만 아니라 상업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行'·'團'·'作' 등의 상인 수공업자 단체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동업조합의 형식을 지닌 조직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낮은 생산성과 시제의 규제로 인해 상공업자는 국가의 통제하에서 다분히 타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宋代의 동업조합은 이러한 장애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였고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상당 부분 독자적인 이익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²⁷⁾

4. 서사문학의 발전 양상

1) 書畵와 통속문학의 발전

宋代의 질적·양적 경제생산력의 발전에 힘입어 도시를 중심으로 동업조합과 같은 이익단체를 조직한 시민계층은 점차 정치적, 문화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그들에게 문화시장의 주도권이 이행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왜냐하면 宋代의 신분 구조 속에서 이들 중간적 시민계층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가장 활발하고 생산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이자 소비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²⁸⁾

26) 徐洪興, 姚榮濤 저, 이진영 옮김, 《전추홍망, 송나라 문의 흥성과 무의 쇠락》, 따뜻한 손, 2010년, 395-397쪽 참고.

27)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講座中國史》Ⅲ, 지식산업사, 2006년, 271쪽 참고.

28) 이러한 경향은 서양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나타난 건축 상인조합이나 길드(guild)가 대표적인 것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 예술시장의 경쟁

南宋 耐得翁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都城紀勝》의 〈社會〉편을 보면 ‘西湖詩社’·‘蹴鞠打毬社’·‘川弩射弓社’·‘茶湯會’·‘酒行’·‘錦體社’·‘入仙社’·‘漁父習閑社’·‘神鬼社’·‘奇巧飲食社’·‘花果社’·‘七寶考古社’·‘馬社’·‘清樂社’처럼 비영리단체로 보이는 많은 동호회 조직이 소개되어 있다.²⁹⁾ 이러한 동호회 조직은 위에서 언급한 ‘行’·‘團’·‘作’ 등의 상인 수공업자 단체와 더불어 宋代 문화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처럼 宋代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관심이 미시적으로 분화되는 가운데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書會’라고 하는 조직이다. 書會는 宋代에 처음 출현했는데, 주로 瓦舍에서 극단을 조직해서 雜劇·講史·諸宮調 등 통속문학의 대본을 창작하는 민간예술 동업조합으로 ‘guild’와 흡사한 조직이다. 《都城紀勝》의 〈三教外地〉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都城 안팎으로 文武 兩學과 宗學·京學·縣學 이외에 나머지 鄉校·家塾·舍館·書會가 있었는데, 一里마다 반드시 한두 곳이 있어서 악기소리와 책 읽는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과거가 있는 해에는 舍館로 보충 선발되는 자도 있었다.³⁰⁾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書會는 원래 교육 기관이었다가 그 기능이 說話나 희극에 쓰이는 話本이나 劇本을 전문적으로 창작하고 편집하던 문인 위주의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書會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宋代에는 주로 ‘書會先生’으로 불렀고, 元代에는 ‘才人’이라고도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실의한 문사나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춘 계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가운데는 임시적으로 그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과거에 합격하는 자도 있었다는 점이다. 宋元 시기를 거치면서 書會에는 문인 외에

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시의 예술가들도 경제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 많은 길드를 조직했다.(Arnold Hauser 지음, 백낙청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권, 창작과비평사, 2007년), 325-334쪽 참고.

29) 위의 책, 《東京夢華錄外四種》, 98쪽.

30) “都城內外, 自文武兩學, 宗學·京學·縣學之外, 其餘鄉校·家塾·舍館·書會, 每一里巷須一二所, 弦誦之聲, 往往相聞, 遇大比之歲, 間有登第補中舍選者.” 위의 책, 《東京夢華錄外四種》, 101쪽.

저급관리나 의사, 상인 및 才學과 무대에서 공연 경험이 있는 예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元代 鍾嗣成이 편찬한 《錄鬼簿》에 수록된 南宋 인물 李時中은 일찍이 中書省除工部主事라는 관직을 지냈다. 역시 宋末元初의 인물인 馬致遠은 江浙行省 務官이라는 관직을 지냈다. 王伯成과 沈和甫는 저급관리였으며, 施君承은 장사꾼 출신이고, 蕭德祥은 의사 출신이고, 紅字李二와 花李郎은 教坊 출신이다.³¹⁾ 통속문학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문장력과 학식을 갖춘 문인들의 참여는 질적인 발전을 끌어내는 계기가 된다. 宋代에서 元代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書會는 더욱 전문성을 띄게 되는데, 그 까닭은 과거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宋代에는 과거가 계속 성행했기 때문에 書會같은 조직 속에 참여한 문인은 어쩔 수 없이 호구책으로 몸을 담은 것으로 그들의 주요 관심은 역시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元代에는 과거가 폐지되면서 문장이나 학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생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나마 이들이 가진 재주를 펼칠 수 있는 곳은 민간예술계였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 宋代 《醉翁談錄》에 보이는 수많은 서사작품들은 구체적 작가나 편자를 알 수가 없고 단지 제목만 나열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원문 확인이 가능한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전대의 문언소설을 일부 각색하거나 짧은 편폭의 文言文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元代에는 특히 戲曲 方面에서 關漢卿이나 馬致遠과 같은 걸출한 대가들이 탄생하는데, 이들은 모두 前代에 벼슬을 지냈던 인물이다. 馬致遠은 '貞元書會'의 주요 구성원으로 당시 文士였던 王伯成, 李時中과 藝人출신인 花李郎, 紅字李二 등과 교류하면서 《黃梁夢》과 같은 작품을 함께 창작했다. 또한 현존하는 《漢宮秋》를 비롯해 유명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여 당시에는 '曲壯元'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받았다. 과거에 실의하거나 벼슬길이 막힌 문인이 민간 예술계로 들어와 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최초에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書會는 宋元시기를 거치면서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서사문학의 본원지로 탈바꿈하면서 갈수록 변성했다. 현존하는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書會로는 '永嘉書會'·'九山書會'·'古杭書會'·'武林書會'·'玉京

31) 《錄鬼簿》에 나오는 인물은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北京, 中華書局, 1982년, 65쪽 참고.

書會·‘元貞書會’·‘敬先書會’ 등이 있다. 賈仲明은〈書錄鬼簿後〉에 “사방의 名公士大夫들이 당시에 유행하는 傳奇와 樂章, 隱語(수수께끼)를 편찬했다”고 기록했다.³²⁾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書會에서 戲文·雜劇·唱本·話本뿐만 아니라 수수께끼같은 통속오락물까지 창작함으로써 명실공히 통속문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2) 서사문학의 분화

宋代의 문화적 특징에 따른 서사문학의 분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첫째, 귀족이 주체가 된 서사문학으로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 즉 통속적인 서사문학의 방향으로 진화한다. 北宋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小唱·諸宮調·話本·雜劇·戲文 등은 모두 도시 통속문학의 흥기와 함께 빠르게 분화하고 발전했다. 이러한 신흥 서사문학의 특징은 도시 서민이 주된 소비층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그 주된 내용 또한 주로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세태이거나 혹은 세속화된 역사, 傳奇, 神魔 등 기이하고 흥미가 위주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羅燁은《醉翁談錄》의〈小說開闢〉에서 중국소설사상 최초로 소설을 ‘靈怪’·‘煙粉’·‘公案’·‘朴刀’·‘捍棒’·‘妖術’·‘神仙’ 등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주제들은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통속적인 것들로 “자연스럽게 이야기 마당 위에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길로 바람이 일고, 이야기틀 하는 이야기꾼 주위에는 사람들이 마치 못별들이 북극성을 돌듯이 에워싸게 되었다.(自然使席上風生, 不枉教坐間星拱)”³³⁾고 하니 당시 소설을 위시한 서사문학은 일부 상층 문인이나 소수 귀족만을 위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小說開闢〉에는 오늘날까지 가장 대중적인《三國志演義》와《水滸傳》의 전신이 되는 작품들의 원형도 보이는데 諸葛亮·石頭孫立·李從吉·靑面獸·花和尚·武行者와 같은 등장인물들이 각각 한 편의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외에도《大宋宣和遺事》·《大唐三藏取

32) 위의 책, 《話本小說概論》, 66쪽 참고.

33) 羅燁, 《醉翁談錄》, 台北, 世界書局, 1965년, 3쪽.

經詩話》·《清平山堂話本》·‘三言’과 같은 후대의 소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모두 宋代에 그 이야기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宋代는 서사문학의 분화가 대중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적 특징을 지닌다.

둘째, 전문적인 직업 소설인과 설화인의 등장으로 서사문학이 분업화되고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文史哲에 상당 정도의 지식을 갖춘 이들로서 향후 서사문학의 전파에 있어서 절대적인 매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전파의 매개수단이 주로 口演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파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書會처럼 설화인들이 口演을 하기 위한 기본 서사의 내용을 창작 또는 편집하는 전문 집단군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주로 文言으로 기록된 역사서나 《태평광기》와 같은 문헌들에서 대중이 흥미를 느낄 만한 작품들을 선별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중국소설사에서 문언소설이 백화로 된 통속소설로 이행할 수 있었다. 서사문학의 분화가 일부의 상층부로부터 이탈하여 대중이 즐길 수 있는 통속문학으로 양분화되는 기점에 宋代에 활약한 전문적 소설인과 설화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서사문학이 분화하는 가운데 그 주체로서 여성의 등장이 전대에 비해서 두드러진다. 여성문학의 대두 역시 宋代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만하며 이러한 현상 또한 당시의 도시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醉翁談錄·戊集》에는 당시의 名妓 55명의 명단이 각각 꽃에 비유되어 칠언절구로 나열되어 있다.³⁴⁾ 또 《夢梁錄》에도 역시 당시 名妓의 조건과 官妓 11명, 私妓 23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詞’를 노래하고, 때로는 부잣집 잔치에 출장을 나가기도 했다. 그들은 또 조직화되어 있었던 듯하다. 총지배인 한 명 이외에 백 명마다, 천 명마다 각각 한 사람의 감시자가 있었다고 한다.³⁵⁾ 妓女는 文人과 가장 교류가 많은 여성에 속한다. 특히 名妓라고 알려진 여성들은 미모뿐만 아니라 詩詞나 才談 등 일정 정도의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妓女의 역사는 장구하지만 宋代에 형성된 도시 시장은 여성들을 규방으로부터 점차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들이 겪

34) 위의 책, 《醉翁談錄》, 45-54쪽.

35) 위의 책, 《중국중세도시기행》, 141쪽 참고.

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과 사건들은 서사문학 속에 투영되었던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통속문학의 주요 소비층으로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宋代에 탄생한 소설에는 여성 형상이 전대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우선 《醉翁談錄》에 기록된 ‘傳奇類’에는 〈鶯鶯傳〉·〈王魁負心〉·〈卓文君〉·〈李亞仙〉 등의 작품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여성이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또 《清平山堂話本》에도 〈風月瑞仙亭〉·〈快嘴李翠蓮記〉·〈藍橋記〉·〈風月相思〉·〈陳巡檢梅嶺失妻記〉·〈五戒禪師私紅蓮記〉·〈花燈輪蓮女成佛記〉·〈勿頸鴛鴦會〉처럼 상당수의 작품에 여성이 중심 인물로 등장한다. 妓女 가운데는 ‘師師’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눈에 띈다. 《醉翁談錄》丙集에 수록된 〈三妓挾耆卿作詞〉에는 ‘張師師’로, 《清平山堂話本》의 〈柳耆卿詩酒翫江樓記〉에는 ‘陳師師’로, 또 100회본 《水滸傳》 제81회에 등장하는 ‘李師師’는 姓은 각각 다르지만 아마도 宋代에 가장 유명세를 떨친 妓女로 추측된다. 이러한 인물은 소설 속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여성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서사문학의 분화는 결국 明清시기에 《金瓶梅》나 《紅樓夢》과 같은 대작이 나올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宋代에 시작된 서사문학의 분화는 단선적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宋代 문화의 특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4. 맺음말

소설을 비롯한 중국 서사문학의 발전 과정에서 宋代는 가장 주목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중국 역대왕조 가운데서 학술과 문화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前代의 것을 一新하여 큰 물줄기의 방향을 바꾼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변화는 도시의 變革이라고 하는 유형의 것에서 시작하여,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은 무형의 것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전면적으

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宋代 문화를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크게 나누어 핵심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사문학의 발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정신문화의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문치주의와 교육제도를 꼽았는데, 太祖 趙匡胤 이래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된 문치주의는 서사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 되어 주었다. 또 과거와 각종 학교로 대변되는 교육제도는 결과적으로 식자층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관직에 오르지 못한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민간문학의 영역에 뛰어들면서 소설을 비롯한 서사문학은 양적, 질적 성장을 대폭 이룩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元代에도 이어졌는데, 이 시기에 크게 성장한 서사문학의 발전은 모두 宋代의 변혁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물질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개방적인 도시의 발전과 王安石을 비롯한 개혁가들의 합리적인 시각에 기초한 다양한 제도의 시도로 이룩한 경제구조의 변혁과 발전이었다.

마지막으로 宋代 문화의 전면적인 변화에 힘입어 서사문학은 미증유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관관계를 논증하였다. 분업화된 경제구조 속에서書會와 같은 조직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서사문학은 소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분화되었다. 특히 소설 내적으로는 여성의 비중이 전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元)脫脫 等撰,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97.
 孔凡禮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2004.
 (南宋)耐得翁, 《東京夢華錄外四種》, 台北: 古亭書屋, 1975
 羅燁, 《醉翁談錄》, 台北: 世界書局, 1965.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北京: 中華書局, 1982.
 丁傳靖, 《宋人軼事彙編》, 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82
 吳晟, 『瓦舍文化與宋元戲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郭齊家, 《中國古代學校》,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
- 郭齊家, 《中國古代考試制度》,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
- 姚瀛艇 主編, 《宋代文化史》, 河南: 河南大學出版社, 1999.
- 程民生, 《宋代地域經濟》, 河南: 河南大學出版社, 1999.
- 廖奔, 《中國古代劇場史》, 河南: 中州古籍出版社, 1997.
- (日) 加藤繁, 《中國經濟史考證》 제1권, 北京: 商務印書館, 1959.
- Arnold Hauser 지음, 백낙청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비평사, 2007.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講座中國史》 III, 지식산업사, 2006.
- 조관희, 《중국사강의》, 궁리출판, 2011.
- 조병세 지음, 《송태조 조광윤》, 도서출판 태봉, 2011.
- 미우라쿠니오 지음, 이승연 옮김, 《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책세상, 2005.
- 徐洪興 저, 이진영 옮김, 《천추홍망, 송나라 문외의 흥성과 무의 쇠락》, 따뜻한 손, 2010.
- 金諍 지음,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2003.
- 伊原弘 지음, 조관희 옮김, 《중국중세도시기행》, 서울: 學古房, 2012.
- 李時燦, 《〈綠窓新話〉一書의 성격과 소설사적 가치》, 《中國文學研究》 54집, 2014.

〈中文提要〉

本论文主要考察宋代文化与叙事文学发展之相关关系。宋代文化, 无论在人生思想、精神境界、审美意识、城市结构、价值观念或社会心态乃至生活情趣等方面, 自与前代有所不同。这样不同, 就构成了宋代文化的特点。这些特点, 大致可以概括如下:

一、宋代精神文化素质, 较前代特为高。由于宋代科举考试、高等教育向一般士人乃至工商杂类转移, 地方学校的设立较为普遍, 私学与书院的发展, 于是读书人口增加, 著书的人也增多, 全社会的文化素质, 自然较前代为高。

二、知识分子受到尊重。自太祖赵匡胤广范地实施文治政策以来, 由于门阀士族衰落, 士庶界限泯没, 门第血统关系在社会政治生活中的支配力量就大大削弱; 又由于科举制度的推行, 为地主阶级的下层乃至自耕农民、工商杂类提供进身之路, 读书受教育、学知识, 就受到社会的普遍的重视; 知识和个人的才能在社会政治中的作用大大增强。

三、宋代物质文化质量, 在经济结构和城市结构上, 较前代特为突出。在宋代城市发展过程中, 随着旧的坊市制的崩溃, 商店可以在城内外沿街设置, 高大的酒楼耸立起来, 商品经济空前活跃, 同时开始出现了都市文化娱乐市场‘瓦舍’。

如上所述的宋代文化的特点就促进了叙事文学的发展。尤其是书会的出现, 使以小说为代表的叙事文学的分化也作了促进作用。还有, 在叙事文学作品里女性形象的重要性增多也不可或缺的事实。

综而言之, 中国古代小说的发展至宋代, 出现了重要转折现象, 即以文言小说为主的叙事文学主要变为以通俗小说为主。小说史上的这一巨大转折, 在元明时期达到全盛, 起了决定性的作用。从根本上讲, 促成这一转折的主要原因是自宋代开始的成市经济的繁荣如市民阶层的壮大。

關鍵詞: 宋代, 都市, 書會, 敘事文學, 文治主義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